【자유교회 소식】

1.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모인 자유교회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인터뷰 설교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이창호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3. 아침 묵상이나 주일 설교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카톡으로 물어 주시길 바랍니다.
4.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페더럴웨이 제일 장로교회에서 이성주 집사님이 공감이라는 주제로 공연이 있습니다.
5. 젤레(Zelle)로 헌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jayoochurch)
6. 병환이나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각 속회의 속장과 인도자는 안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200.00	
감사헌금:	$600.00	
주일헌금:	$140.00	
특별헌금:	$1,100.00	합계 $2,04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개혁과 갱신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 일 / 예 / 배

주일 오전 11시 **인도: 이진우 목사**

예배의 부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찬 양 팀
찬 양	Praise	다 같 이
신앙고백	주기도문	다 같 이
찬 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같 이
기 도	Prayer	최유정 권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경봉독	**히브리서 12:10-11**	인 도 자
인 터 뷰 설 교	**아직 훈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창호 권사 이진우 목사
찬 송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이창호 권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예 배	주 일 오 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주 일 오 전 11시
아 침 묵 상	월-금 오전 8:00
Youth Group	수 오후 7시(FFC Youth)

2026년 8월 23일 2026-34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253) 227-1775
JAYOOCHURCH.COM
JAYOOCH@GMAIL.COM

인터뷰 설교를 위한 질문

1.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선수에서 지도자가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져야 했던 생각이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2.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재능은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학생과, 재능은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권사님은 선수 시절 어느 쪽에 더 가까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가르치시는 코치라면, 권사님은 어떤 학생일 것 같습니까?

3. 권사님의 인생에서도 당시에는 분명한 실패나 좌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킨 중요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4. 한국에서의 익숙한 삶을 떠나 낯선 미국 땅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사람이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5. 권사님께서는 처음 교회를 찾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교우 가운데에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권사님 스스로 "이 부분은 아직도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권사님은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권사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사람을 끝내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권사님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지도자로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9.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실제로 깊어진 것인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믿음이 예전보다 실제로 성장했다는 것을 어떤 변화로 확인하십니까?

10.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했던 불편이나 아쉬움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유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 오랫동안 지켜본 우리 교회의 가장 좋은 점과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권사님은 매주 안내와 설교 녹화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혹시 "왜 나만 이런 봉사를 계속하지?"라는 섭섭함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쉽지 않은 봉사와 섬김을 계속하게 하는 마음이나 힘은 무엇입니까?

13.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어떻게 영적인 회복을 얻으십니까?

14. 지난주 아드님을 결혼시키셨습니다. 아들을 키워온 시간을 돌아볼 때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시 기회가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5. 결혼한 자녀이지만 여전히 부모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과 이제는 어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물러나야 할 영역의 경계를 어디에 두고 싶으십니까?

16. 먼 훗날 아드님과 며느리가 권사님을 회고하면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배웠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17. 선수와 코치, 이민자와 지도자,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지금, 권사님이 생각하는 '잘 산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18. 남은 생애를 생각할 때 권사님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사님의 신앙은 그 두려움 앞에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19. 하나님께서 지금 권사님에게 "더 온전한 사람으로 늙어가기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것 하나를 말해 보라"고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 다음 인터뷰 설교자로 추천하고 싶은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추천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